

〈연구결과보고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현황 연구

2025년 10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말레이시아
2. 출장목적 : 2024학년도 단기국외연수
(주제 :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현황 연구)
3. 출장기간 : 2025. 2. 1.~ 2025. 4. 30.(3개월)
4. 보고서 작성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용철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현황 연구¹⁾

〈목차〉

- I. 초청대학 Open Universtiy Malaysia(OUM) 소개
- II.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말레이시아 사회의 문화적 특성
- III. 한류로 인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관계 변화
- IV.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발전과 현황
- V.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요약문〉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1960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으며, 1982년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계기로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산업기술과 근면성을 본보기로 삼은 이 정책은 인적 교류와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되었고, 현재 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자유무역협정(MKFTA) 재개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에너지, 방산, 광물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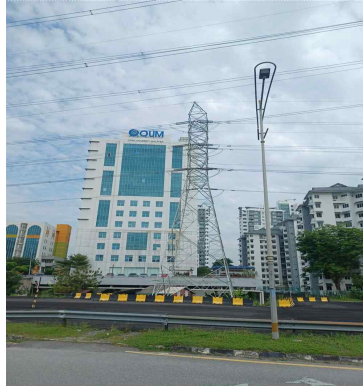
2000년대 초 〈겨울연가〉와 〈대장금〉의 인기를 계기로 한류가 말레이시아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관계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교류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가족 가치관이 전달되었고, 한국 음식·패션·관광·언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후 K-pop의 전 세계적 인기가 더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는 일상 속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K-pop 팬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선 및 사회활동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말레이시아 내 청년층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했다.

한류 확산은 한국어 교육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말레이시아 대학들은 제2외국어나 교양 과목 형태로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으며,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과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11개 중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정규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지 맞춤형 교재가 개발·보급되고 있다.

향후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대학 내 한국학 전공 신설, 현지 교사 양성, 산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문화 콘텐츠형 수업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한류를 일방적 문화 전파가 아닌 상호 문화 이해의 통로로 발전시켜, 말레이시아의 종교와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문화 감수성’과 포용적 접근이야말로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한국과 말레이시아 관계 심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1) 원래 제목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원격 교육 현황’이었지만 초청대학은 OUM에서 한국어 원격 교육이 폐지되었고, 말레이시아의 다른 대학들에서도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원격 교육과 면대면 교육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현황’으로 제목을 단순 변경하였다.

I. 초청대학 Open Universtiy Malaysia(OUM) 소개



〈OUM 건물〉

OUM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원격 개방대학으로 고등교육의 민주화(Digital Universtiy for all)라는 목표와 유연한 학습을 위한 선도 기관(To be the leading Provider of Flexible Learning)이라는 비전을 갖고 2000년 8월에 설립되었다²⁾. 11개 공립대학 컨소시엄으로, 공립대학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으로 분류된다.

2001년 개교 당시 첫 입학생 수는 700명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25년 현재 학부 재학생 수는 현재 약 35,000명, 석사 과정 재학생 수 약 400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원 수는 2021년 현재 835명으로, 정규 교수는 86명이고 파트 타임 강사는 749명이다.

전통적인 입학 경로와 더불어 실무 경험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실무 경험 기반 학습 인정 제도(APEL, Accredita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OUM은 4개 학부(경영 대학, 기술과 응용과학 대학, 교육 대학, 사회과학과 인문 대학)에서 30개의 전공 프로그램을, 4개 대학원(경영 대학원, 기술과 응용과학 대학원, 교육 대학원, 사회과학과 인문 대학원)에서 33개의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튜토리얼, 상호작용 가능한 온라인 포럼,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콘텐츠를 통해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석, 과제 제출, 퀴즈, 시험 등 학습 활동이 자동으로 관리된다. 교수자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의 학습 진도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위 과정별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유형	1학기 RM	1년(3학기) 총액 RM
경영학 학사 (풀타임)	약 3,000 - 3,500	약 9,000 - 10,500
교육학 학사 (영어 TESL)	약 1,700 - 2,000	약 5,100 - 6,000
교육학 석사	약 4,000	약 12,000
상담학 석사	약 5,500	약 1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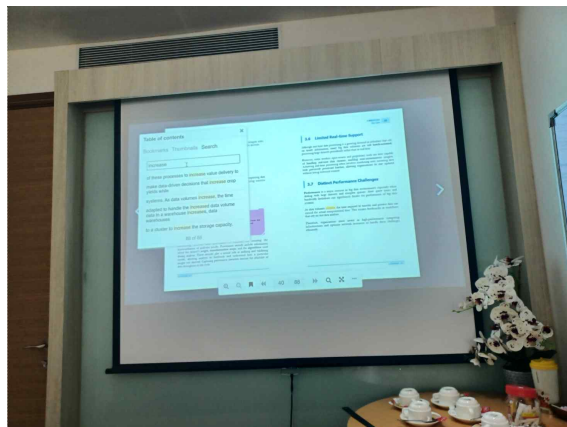
2) Open University Malaysia Official Website, "About OUM," accessed October 2025, <https://www.oum.edu.my>

◆ OUM 방문 소감과 제언 (2025년 2월 21일)



〈OUM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시연하는 필자〉

우선 OUM의 교수진과 제작팀 중 일부는 이미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방문한 바 있어서, 우리 대학의 시스템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대학의 외적 규모로 보였는데, 방송 스튜디오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2개의 TV 스튜디오와 9개의 웹 스튜디오를 가진 우리 대학에 비해 1개의 스튜디오만을 가진 OUM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전공을 제공하는 OUM에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사정을 물어보니, OUM의 멀티미디어 강의는 전체 강의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지 우리 대학처럼 정해진 진도를 나아가는 강의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대학에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있을 때만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수자들의 연구실은 따로 없었고 일종의 공유 오피스 같은 형태로 연구실이 제공되고 있었다. 과목 소개 중심의 멀티미디어 강의로 인해 수업의 상당 부분은 교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OUM에는 기본적으로 종이 교재가 없으며 모두 전자 교재로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OUM 전자교재 예시〉

교재의 기술적 수준은 내가 볼 때 매우 높은 편으로 종이 교재를 디지털화한 형태를 넘어서 그림과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내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별 교재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학기별로 납부하는 등록금에 모든 필수 학습 자료(전자교재, 코스 모듈, 스테디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제공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대학에서도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은 교재를 사지 않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선배들로부터 중고 교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고 또 불법 복사를 통해 교재를 입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통적인 종이 교재를 발간하지 못할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재 대금을 수강료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OUM은 공립대학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OUM은 재정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반면, 공립대학들의 전문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운영 형태는 사립대학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업 교육 과정의 확대 도입은 현재 학생 우리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더불어 학부 과정 커리큘럼을 검토한 결과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공으로는 정치학과 심리학이 있는데, 요즘 처럼 심리상담과 치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심리학과와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은 등록금 문제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OUM의 학사 과정 1년 등록금은 교육학 학사를 예로 볼 때 우리 돈으로 약 1,700,000- 2,000,000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1년 등록금 약 700,000원의 2.5배를 상회한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평균 소득이 대한민국의 1/3임을 고려하면 거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7.5배를 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장학금 등의 수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II.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말레이시아 사회의 문화적 특성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Malay), 중국계(Chinese)³⁾, 인도계(Indian)⁴⁾, 그리고 소수 원주민

3) 7세기경 이미 말라카 해협 일대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다. 중국 당(唐)·송(宋)·명(明) 왕조의 상인, 사신, 불교 승려들이 말라카, 페낭, 사라왁 등 항구를 방문하며 교역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국인은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온 일시적 방문객이었고, 본격적인 정착은 거의 없었다. 15세기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항해(1405-1433)는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중국인들이 말레이 여성과 결혼하여 후손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페라나칸(Peranakan)이라 부른다.



(Orang Asli)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말레이계는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며,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는다. 중국계는 약 23%로, 상업과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 인도계는 약 7% 정도로, 주로 남인도 타밀계 후손이며,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다. 이러한 구성이 말레이시아를 다언어·다종교·다문화 국가로 만들었으며, 각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가 유입될 때도 ‘말레이계의 종교적 제한’, ‘중국계의 소비문화 친화성’ 등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말레이시아의 국어(Bahasa Malaysia)는 말레이어이지만, 영어는 여전히 공용 수준으로 널리 사용된다. 공교육, 행정, 미디어, 비즈니스 전반에서 영어와 말레이어는 같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정과 민족 집단에서 중국계는 중국어(특히 만다린, 광둥어, 복건어)를, 인도계는 타밀어를 병행

(페르나칸대표 음식 랍사)

1786년 페낭, 1819년 싱가포르, 1824년 말라카가 차례로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영국은 식민지 개발을 위해 중국 남부(광둥, 복건, 해남 등지) 출신 노동자를 대규모로 모집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주석 광산 광부로 일했다.



(현재는 폐광이 되어 관광지가 된 이포 주석 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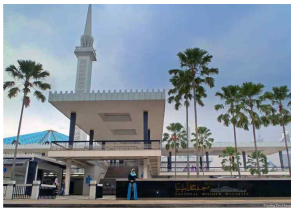
이 시기에 형성된 중국계 커뮤니티가 말레이시아 내 ‘화교(華僑)’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들 노동자 중 일부는 자립하여 중간상·소상인·장인으로 성장했고, 특히 복건·광둥계 이민자들은 동향회(會館)를 조직하여 상호부조, 종교의례,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화교들은 점차 상업과 금융 분야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20세기 초 영국은 말레이계 농민과 중국계 상인을 “분할통치(divide and rule)”하면서, 말레이인은 주로 농촌의 전통적 농업에 남게 하고, 중국인은 도시·광산·상업 부문으로 유도했다. 이 결과, 중국계는 도시 거주·교육 수준·경제력이 모두 높아지며 말레이시아의 중간계급으로 성장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계는 경제·상업의 중심”이라는 인식은 이 시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 4) 말레이반도는 오래전부터 인도와 해상무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기원후 3세기경부터 인도의 힌두교·불교 문화가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로 전파되어, 슈리비자야 왕국(Srivijaya, 7~13세기) 과 말라카 술탄국(15세기)에도 인도 문화의 흔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인도인은 문화적·종교적 영향을 미쳤지만 이주 정착민은 아니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은 고무 플랜테이션, 도로와 철도 건설, 항만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인도 타밀 지역에서 대규모 노동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계약노동의 형태로 3~5년간 일하도록 고용되었는데, 이후 일부는 정착하여 가족을 형성했다. 이와 아울러 영국은 인도 북부 및 실론(스리랑카) 출신의 고등교육 인력을 행정직, 기술직, 교사, 경찰로 파견했는데, 이들은 도시 노동, 전문직, 교육, 의료 분야에서 점차 중산층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인도계의 종교행사는 말레이시아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는데, 매년 바투 동굴(Batu Cave)에서 개최되는 타이푸삼(Thaipusam, 힌두 신 무루간이 악마 수라파드만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은 말레이시아의 대표 관광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다언어 환경은 외국어 학습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로 한국어도 제3외국어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으며, K-콘텐츠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가 언어적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이는 공공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음식(할랄), 복장 규범, 공공장소의 성별 구분, 교육제도, 방송 콘텐츠 등에서 종교 규범이 작동한다. 중국계와 인도계 지역은 불교, 도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신앙이 공존하지만, 공적 공간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인 보수적 가치 체계가 사회 전반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외래 문화의 수용은 언제나 종교적·윤리적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지나친 서구화나 성적 표현이 강한 콘텐츠는 검열 대상이 되고, 감정 중심의 가족 서사나 도덕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가 특히 환영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 모스크)



(이슬람 예술 박물관)



(지하철 여성 전용칸)

한국 드라마나 K-pop의 복장, 연애 표현 등은 종종 문화적 보수성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해서, 일부 말레이시아인들은 한국 드라마가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가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국가 관리하에 있으며, 영어교육의 비중이 높다. 국립학교에서는 말레이어가 필수이지만, 영어·중국어·타밀어가 선택 과목으로 제공된다. 사립 및 국제학교에서는 영어 중심의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며, 한국어를 선택 외국어로 개설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다언어 인재 국가(Multilingual Nation)’ 정책을 추진 중으로, 한국어가 제3외국어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SNS와 유튜브 사용률이 매우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스마트폰을 사용, 85%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드라마, 음악, 뷰티, 푸드)는 넷플릭스·유튜브·틱톡 등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K-pop 팬클럽, K-뷰티 커뮤니티, 한식 카페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하다. 즉, 한국 문화는 단순한 ‘외래 트렌드’가 아니라, 현지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공동체 중심, 연장자 존중, 종교적 도덕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밀레니얼·Z세대는 SNS를 통해 글로벌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성평등, 개인 표현의 자유, 자기계발 중심의 가치관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이 세대 변화가 한국 문화의 수용성 확대와 한국어 학습 동기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는 ‘문화 혼합(hybrid culture)’이다. 음식, 의복, 음악, 축제 등에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시 르막(Nasi Lemak)’은 말레이 전통 음식이지만 중국식, 인도식 변형이 존재하며, 한국식 퓨전 버전(‘K-Nasi Lemak’)도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사회는 외래문화를 배척하기보다 자국화(localization)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도 할랄 K-푸드, 무슬림용 K-패션, K-pop 리믹스 등 ‘현지화된 K-컬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정책은 ‘Rukun Negara(국민원리)’⁵⁾를 중심으로 조화와 다문화 공존을 강조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래문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외 콘텐츠를 상영·수입한다. 이런 유연한 정책은 한국 문화가 비교적 원활히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III. 한류로 인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관계 변화⁶⁾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는 1960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1982년 마하트리 총리에 의해 주창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의해 더욱 밀접해지기 시작했다. 동방정책은 서구식 발전 모델 대신 동아시아 경제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및 사회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아 말레이시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동방정책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 관계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1983년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선진 기술과 근로자들의 근면성을 배우기 위하여 상당 수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대학생, 기술자, 경영인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1982년 현대건설이 건설한 피낭 대교 : 당시 동양에서는 최고로 길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이 교량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다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신흥공업국 단계를 뛰어넘은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5) 1970년 8월 31일(말레이시아 독립 13주년 기념일)에 제정된 '국민 통합 선언'으로 말레이시아 사회의 다인종·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국민 통합과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제정된 국가 철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제정 목적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1. 국가 통합의 강화 : 다양한 인종·종교·문화 배경의 국민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구현.
 2. 민주적 삶의 방식 유지 :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시민 참여를 보장.
 3. 공정한 사회 창조 :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
 4. 풍요로운 국가 기반 구축
 5. 과학과 진보의 발전 :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근대화와 국가 발전을 추진.
- 6) 여기서는 다양한 한류 부문 중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초창기를 이끈 핵심 콘텐츠인 한국 드라마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K-pop만을 다루고자 한다.



〈삼성건설(현 삼성물산)과 극동건설, 말레이시아의 자사테라사,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해 1998년 완공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했고, 현재에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참여하여 2024년 1월 11일 개관식을 연 메르데카 118 :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장 근처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독립을 기념하는 건물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경제적 관계는 이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11번째,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0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양국 사이의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한 주요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석유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을 수출하고 천연가스와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MKFTA) 협상이 재개되어 현재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국방,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인프라, ASEAN 국가들과의 인접성, 그리고 선도기업제도(Pioneer Status)⁷⁾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⁸⁾

7) 5년-10년간 소득의 7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

8) 투자세 공제로서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 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등 매력적인 세계 혜택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⁹⁾의 할랄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할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양국은 또한 화학, 전자기기,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총 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최대 36대 규모의 한국산 FA-50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큰 항공 전력 도입 사업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탈중국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무역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처음에는 정치 외교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에서 양국 정부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2002년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Winter Sonata)>가 TV3에서 방영된 이후에는 한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민간 수준에서 그 유대가 강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유력 일간지인 스타지(The Star)의 2003년 8월 1일 기사에 따르면 <겨울 연가>는 평균 150만 명 이상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겨울 연가>의 주인공 윤사마 배용준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의 간판스타로 대접받고 있으며, 드라마 방영 이후 주인공들의 동상이 있는 한국의 남이섬 등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식인 비빔밥이나 프라이드치킨의 인기도 높아졌다. <가을 동화>는 <겨울 연가>에 이어 방영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를 이어나갔다. <가을 동화>에 나온 배우 송승헌에 마음을 뺏긴 여자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말레이시아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동남아 가요계에서 인기를 모으며, 한국 드라마에 이어 한국 가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겨울 연가>와 <가을 동화>는 말레이시아 시청자에게 처음으로 한국식 멜로드라마의 감성적 정서와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전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일본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시기였으나, 한국 드라마의 등장으로 보다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랑 서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 드라마는 '낮선 아시아 이웃의 정서적 친근함'으로 소비되었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 패션·음악·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었다.

2005년 말레이시아 공중파 채널 TV8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대장금> 또한 한류 열풍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장금>은 말레이어 자막판과 중국어 더빙판이 모두 제공되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시청자층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대장금>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문화적 전환점을 이룬다. 조선시대 궁중요리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한국 전통문화와 여성의 자아 성장 서사를 결합해, 말레이시아 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치와 종교적 윤리관에도 부합하는 서사를 보여주었다. 주공 이영애는 '여자 윤사마'로 불리며 <겨울 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의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연애인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음식을 소재로 삼은 이 드라마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져, 말레이시아 현지의 한국식당에서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찾는 현지인이 크게 늘어났으며 한식당 수가 급증하였으며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식당들도 생겨났다. '대장금'은 한식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9) 말레이시아 JAKIM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의 약자로,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인증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JAKIM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할랄 인증 기관이며,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할랄 제품에는 JAKIM 인증 마크 또는 이와 교차 인정되는 할랄 인증 마크만 부착될 수 있습니다.

건강, 성실, 전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서 신문 기사에도 ‘대장금 효과(Dae Jang Geum effect)’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고, 이때부터 말레이시아 대학 및 사설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또한 한국 방송사들이 KBS World, MBC Asia, ONE Channel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르(사극, 로맨스, 코미디)가 소개되면서 한국 드라마는 하나의 고정된 방송 카테고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1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한류는 K-pop과 K-drama의 결합형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 스마트폰 보급과 SNS(YouTube, Facebook, Twitter)의 확산은 드라마 소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시크릿 가든〉(2010), 〈별에서 온 그대〉(2013), 〈상속자들〉(201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감각적 영상미와 배우 중심 팬덤 형성을 통해 한류의 폭을 청소년·대학생층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말레이시아 팬들은 비공식 팬 서브(fan-sub) 번역 그룹을 결성해, 자막을 추가한 영상을 SNS에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 번역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에 말레이시아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강좌와 한국학 연구가 더욱 증가하였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치관, 언어, 패션, 음식문화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즉, 드라마는 단순한 시청 대상에서 문화 학습의 창구로 발전하였다.

2016년 이후 Netflix, VIU, iflix 등의 OTT 플랫폼이 보급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대표작으로는 〈태양의 후예〉(2016), 〈도깨비〉(2016), 〈미스터 션샤인〉(2018), 〈사랑의 불시착〉(2019) 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은 고화질 스트리밍, 공식 자막, 글로벌 동시 방영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청자층을 크게 확대시켰다. OTT 플랫폼의 등장은 시청 행태를 공동 시청 중심에서 개인 시청(individual streaming)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한류 콘텐츠를 세대와 계층을 넘어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말레이시아 방송업계는 한국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여 자국에서 다시 제작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여름 향기〉를 현지 제작한 〈코타키나발루의 기시감(Dejavu di Kinabaulu)〉(2012), 〈비밀〉을 현지 제작한 〈부러진 날개(Patahnya Sebelah Sayap)〉(2016), 〈커피 프린스〉의 말레이시아판인 〈나의 커피 프린스(My Coffee Prince)〉(2017)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들도 속속 제작되고 있는데, 2013년 말레이시아 OTT 플랫폼인 톤톤(Tonton)은 28부작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인 ‘내 마음속에 핀 가을(Autumn Di Hatiku)’ 시즌 1을 방영했다. 이 드라마는 우밍진(Woo Ming Jin) 감독이 연출하고 미디어 프리마가 제작한 작품으로 한국 배우 김진성이 주연인 박가을(Park Autumn)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여성이 한국인 사업가 박가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에는 한국의 식문화, 예절, 그리고 ‘일 더하기 일은 귀요미’ 등 한국에서 인기 있던 유행어 등 한국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 드라마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업가인 남자 주인공과 밝은 미소에 쾌활한 성격인 말괄량이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드라마적인 환상을 그려냈다. 또한 한국인 남자 주인공이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를 구사하고 말레이시아 문화를 긍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도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김진성 배우가 등장하여 한국 남자와 말레이시아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그린 시즌 2가 제작되었다. 한편 중국 OTT 플랫폼인 아이치이(iQIYI)는 2023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작한 13부작인 ‘오빠는 강사님!(Lecturerku, OPPa!)’을 공개했다. 말레이시아의 파이루즈 로이(Fairuz Loy)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말레이시아 대학에 강사로 부임한 한국인 황정현(장한별)과 말레이시아 대학생 사

라(Farhanna Qismina Sweet)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삼각관계와 여주인공의 질투 등 한국 드라마의 로맨스적 요소를 담아 큰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TT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한국 드라마는 말레이시아 미디어 소비의 주요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대표 작품으로는 〈이태원 클라쓰〉(2020), 〈오징어 게임〉(2021), 〈더 글로리〉(2022)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계층 갈등, 사회비판, 젠더 문제, 인간성 탐구 등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며, 말레이시아 시청자층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시켰다. 한국 드라마의 이러한 변모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국을 단순한 재미와 소비 위주의 문화 콘텐츠 생산국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는 창의적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드라마는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문화 외교의 매개체’이자 ‘소프트 파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관광, 유학, 언어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드라마가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초창기를 이끈 핵심 콘텐츠라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한국 문화 분야는 단연 K-pop이다. K-pop은 2000년대 초,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부터 파생된 2차적 문화 소비 현상으로 시작되었다. 드라마 OST를 통해 접한 한국 가수들의 음악이 현지 라디오 방송과 케이블 TV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알려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겨울 연가〉의 OST를 부른 유열, 류 등의 발라드 음악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은 K-pop이 대중화된 폭발적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다. YouTube와 SNS의 확산, 그리고 한류 2세대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전략이 맞물리며 팬층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빅뱅(BigBang) 등 2세대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K-pop은 한국 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말레이시아의 10대와 20대 청년층은 K-pop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온라인 팬덤 활동을 통해 다민족 간 새로운 교류의 장을 형성하였다.

2010년대 이후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BLACKPINK), 엑소(EXO), 트와이스(TWICE) 등의 활동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K-pop은 말레이시아 대중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는 기존 아이돌 중심에서 벗어나, 음악 장르의 다양화와 팬덤 활동의 전문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말레이시아 청소년층은 K-pop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SNS(YouTube, TikTok, Twitter 등)를 활용한 팬덤 공동체 형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BTS의 콘서트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매진되는 등,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특히 K-pop 아이돌의 외모와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브랜드 화장품과 의류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Innisfree, Laneige, Etude House, The Face Shop 등의 브랜드는 2015년 이후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 페낭 등 주요 도시에 잇따라 진출하며 K-pop 문화가 소비문화의 상징 코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제한되자, K-pop은 디지털 팬덤 중심 문화로 재편되었다.

말레이시아 팬들은 온라인 콘서트, SNS 실시간 스트리밍, V Live, Weverse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비대면 참여를 지속하였다. 특히 SNS를 매개로 형성된 팬덤 문화는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여 팬들이 자선활동, 환경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BTS 팬덤인 “ARMY Malaysia”는 생일 축하나 컴백 기념일에 맞추어 기부, 헌혈, 환경정화, 소아병동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덤이 ‘문화 소비자’에서 ‘사회적 행위자’로 전환된 사례로, 청년층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K-pop의 인기는 말레이시아 내 한국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한국 화장품, 의류, 식품, IT 제품 등이 “Korean Wave Product”로 인식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수입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K-pop 공연, 팬 미팅, 페스티벌 등은 항공·숙박·관광업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2019년 “K-Wave 3 Music Festival” 개최 시 쿠알라룸푸르 방문객 수가 약 2만 명 증가했으며, 이 중 40%가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pop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말레이시아 청년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KTO)에 따르면, 2010년 약 10만 명 수준이던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는 2019년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팬덤 중심의 ‘성지 관광’(팬이 특정 아티스트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형태)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한국어 학습 및 유학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도 증가하며, K-pop이 한국문화 확산의 실질적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K-pop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팬층의 증가로 인해 한국어 학습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주요 대학(예: Universiti Malaya,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등)에서는 한국어 과목 또는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생의 대부분이 K-pop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가진 청년층이다. 또한 세종학당이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 사라왁 등에 설치되어 한국어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K-pop은 단순한 한국어 학습 동기를 넘어, 한국의 사회문화·역사·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는 K-pop 댄스, 한국 음식 체험, 전통문화 소개 등 다양한 한류 관련 교육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년층에게 ‘문화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을 키우게 하고, 다문화 공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도	동호회 수	동호회 회원 수	상세보기(동호회명 + 회원수)
2023	9	2,072, 503	BTS Malaysia (675,000) BTS Malaysia ARMY (271,000) DaebaKing (760,000) GOkpop Malaysia (26,000) Hallyu Pop (30,000) K-Popped! (47,000) Malaysia KPOP Fans (107,553) MyKpop Huntress (25,500) TWICE MY (130,000)
2022	10	1,973,959	BTS Malaysia (68,000) BTS Malaysia ARMY (26,345) DaebaKing (730,000) GOkpop Malaysia (26,000) Hallyu Pop (30,000) K-Popped! (44,000) Korea Tourism Organisation (810,000) Malaysia KPOP Fans (107,553) MyKpop Huntress (22,435) TWICE MY (109,626)
2021	8	1,128,458	BTS Malaysia ARMY (23,000) EXO union My (18,425) K-Popped! (48,881)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803,000) Malaysia KPOP Fans (106,190) MyKpop Huntress (20,600) Mykop-Malaysia K-pop Fan Club (2,900)

			TWICE MY (105,462)
2020	15	4,164,298	BTS Malaysia (69,300) BTS Malaysia ARMY (19,900) BigBanag Malyasian Fan Club (48,065) DaebaKing (1,340,398) EXO union My (37,842) GOkpop Malaysia (87,291) Hallyu Pop (59,764) K-food Malaysia (9,270)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1,910,893) Malaysia KPOP Fans (208,100) MyKpop Huntress (51,294) Mykop-Malaysia K-pop Fan Club (5,904) TWICE MY (207,388) We Love K-pop (13,300)
2019	8	1,079,920	BTS Malaysia (68,199) EXO union My (30,082) Hallyu Malaysia (60,759) K-Popped! (92,564)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388,381) Malaysia KPOP Fans (201,223) MyKpop Huntress (29,587) TWICE MY (209,125)
2018	8	402,034	BTS Malaysia (57,700) EXO union My (19,726) Hallyu Malaysia (27,785) K-Popped! (43,410)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50,000) Malaysia KPOP Fans (97,570) MyKpop Huntress (14,901) TWICE MY (90,942)
2017	10	857,458	CN Blue - Boice of Malaysia (603,479) Dalbit Malaysia (927) EXO union My (19,286) Hallyu Malaysia (22,339) K-Popped! (38,575)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50,000) Malaysia KPOP Fans (90,452) Malaysia SONEs (5,669) MyKpop Huntress (14,131) Taeyang Malaysia (12,600)
2016	10	690,455	CN Blue - Boice of Malaysia (621,341) Dalbit Malaysia (764) EXO union My (5,418) Hallyu Malaysia (17,057) K-Popped! (11,492) Kelab Kaki Korea : Official Culture Club (0) Malaysia KPOP Fans (6,317) Malaysia SONEs (5,688) MyKpop Huntress (11,119) Taeyang Malaysia (11,259)
2015	6	44,541	4minute Malaysia My4nia (9,972) B1A4 Malaysia Fanclub (4,776) Inspirit Malaysia (6,312) Malaysia B2UT (12,639) SKC(Saranghaeyo Korea Club) (3,752) Girls' Generation 1 st Malaysia Fanbase (7,090)
2014	6	44,541	4minute Malaysia My4nia (9,972) B1A4 Malaysia Fanclub (4,776) Inspirit Malaysia (6,312) Malaysia B2UT (12,639) SKC(Saranghaeyo Korea Club) (3,752) Girls' Generation 1 st Malaysia Fanbase

			(7,090)
2013	6	36,805	4minute Malaysia My4nia (9,061) B1A4 Malaysia Fanclub (1,200) Inspirit Malaysia (8,000) Malaysia B2UT (8,712) SKC(Saranghaeyo Korea Club) (3,436) Girls' Generation 1 st Malaysia Fanbase (6,396)
2012	5	21,849	BaeYongJun Fan Club (40) MyB2uty (3,556) SHINee World Malaysia (7,583) SKC(Saranghaeyo Korea Club) (2,080) Super Junior 팬클럽 (8,590)

〈표 1 : 한류 동호회 현황〉¹⁰⁾

IV.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 발전과 현황

1980년대 이전에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으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우위에 서게 되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증시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은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선진산업 기술과 경영 지식을 습득하도록 말레이시아의 대학생, 공무원, 전문가들이 한국에 파견되었으나, 이들 연수생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한국 연수 전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1984년 마라 공대에 최초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마라 공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0년대 후반에 말라야 대학과 말레이시아 국립대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말레이시아농과대학(이후 뿌뜨라대학으로 개칭), 말레이시아과학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2000년대 초에는 후세인공과대학, 말레이시아 북부대학, 사라왁대학 등 여러 국립대학, 사립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력 신장에 따라 한국의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어 수요 증가 요인을 찾기 어려웠으나 한류가 본격 상륙한 2010년을 전후하여 다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종학당의 설치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대학 내 한국어 교육의 증가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의 채택 등으로 이어져 한국어 교육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한국어, 한국 문화 관련 교육 제공 대학¹¹⁾

1) Universiti Malaya (UM)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학) 학부에서 한국학(Korean Studies)을 전공으로 선택 가능하다. 전공 과정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한국 관련 언어(Language)과 문화 및 동아시아 지역 이슈 전반에 대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졸업자 수는 초기엔 적었지만(예: 1999년 한해 졸업자 3명 등), 이후 한국 대중문화(K-pop, 드라마) 인기,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서, 다른 동아시아학 전공(일본,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

10)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국가별 한류 현황, 말레이시아 자료 (<https://www.kf.or.kr/koreanstudies/hallyu.do#none>)

11) 나은영(2017)의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말라야 대학교(UM)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방안」은 2017년 이후의 자료들은 없어서 ChatGPT와 Perplexity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재조사하였음을 밝힌다.

장해 왔다.

2) Universiti Teknologi MARA (UiTM)

UiTM엔 Academy of Language Studies / Academy of Pengajian Bahasa (APB/ALS) 산하에서 ‘제3외국어 혹은 선택 언어’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주로 초급 단계 중심이고, 고급 한국어 단계 또는 한국학 전공 과정은 없다.

Korean Language I - 한글 문자(Hangeul)의 기초 배움

기본 문법 구조, 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입문 수준

한국 문화 요소 포함

온라인 한국어 자원 활용 포함됨

Korean Language II - Level I에서 배운 기초 기반 위에 추가 문법, 어휘, 기능 표현 확대.

듣기/ 말하기/읽기 중심 활동 증가.

문화 맥락 속 표현 학습 포함.

Korean Language III - Level II 학습자를 대상으로 더 복잡한 문장 구조, 문단 읽기

/ 쓰기, 상황별 대화 표현 등이 포함됨.

문화적·사회적 주제도 다루어짐.

3) Asia Pacific University of Technology & Innovation (APU)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re)가 운영되고 있으며, ‘Korean Language @ APLC’와 ‘Korean Language Discovery Programme (KLDP)’이 개설되어 초급부터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APU는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 집중 해외 프로그램(AP Language Immersion)을 운영하며, 한국의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Campus

UNM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UNM의 School of Humanities 산하 Language Centre에서 운영되며,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위 과정 내 한국어 모듈은 3단계(Level 1a, 1b, 2)로 구성된 모듈로 제공되며, 각 단계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 기업 고객 및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업 과정 및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20~40시간의 몰입형 실용 한국어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또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초급 한국어 과정’(비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5) Universiti Kuala Lumpur, Malaysi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UniKL MIIT)

UniKL MIIT는 2025년 7월에 King Sejong Institute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UniKL MIIT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공식적 권한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Found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Korean University’라는 기초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국 대학 진학, 인턴십, 한국어 활용 가능 직장 준비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Intensive Korean Language Programme’이 제공되고 있다.

- Found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Korean University (Pre-Korea)

대상: 한국 이공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기간: 1년 6개월

구성: 기초 과학 및 기술 교육 - 한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초 과학 및 기술 과목 이수

한국어 집중 교육 - 60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Level 4 이상 취득 목표

● Korean Premier Programme (KPP)

기간: 2년 (4학기)

전공: 소프트웨어 공학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디자인

한국어 교육 - 한국어 수업을 통해 TOPIK Level 4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한다.

● Korean Language Intensive Programme (KLIP)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 한국어 교육 1년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Level 4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수업이 포함된다.

6) INTEC Education College (Shah Alam, Selangor)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Korean Preparatory Programme'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은 7개월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 대학 진학을 위한 기초 과학 과목이 제공되고 있다.

7) Multimedia University (MMU), (Melaka Campus)

MMU는 세종학당과 협력하여 KSI-MMU Melaka를 운영하고 있다.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제공하며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TOPIK 준비를 위한 수업도 제공된다.

8) OUM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Korean Language for Basic Communication' 과목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회화 수업이다. 이 과목은 한글, 발음, 기본 문장 구조, 어휘, 한국 문화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짧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 현재 한국어 강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9) Universiti Sains Malaysia

교양으로 "Basic Korean Language 1 / 글쓰기 & 읽기 포함", "Basic Korean Language 2"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10) Universiti Tunku Abdul Rahman

2024년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으로 'Virtual Korean Language Course - Basic Level 1'을 개설했다. 주로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11) Universiti Tunku Abdul Rahman

2024년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으로 'Virtual Korean Language Course - Basic Level 1'을 개설했다. 주로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12)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KM)

세종학당과 협력하여 <Hub for Korean Language>에서 학생 및 인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 문화 강연, 관련 커뮤니티 활동 등을 주관하고 있다.

13) Taylor’s University

School of General Studies and Languages (SGSL) 에서 한국어가 여러 국제 언어 (international languages)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이 언어 모듈(language modules)로 한국어를 선택 가능함.

14) Travex International College

주로 관광, 항공, 호텔 산업 분야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컬리지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8주 동안 진행된다.

15) Universiti Putra Malaysia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는 ‘General Korean Language I’과 ‘General Korean Language II’ 를 가르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한 독립 학과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은 대부분 외국어 선택 과목,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세종학당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2. 한국어, 한국 문화 관련 교육 제공 중등학교

2014년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도입하면서 2016년으로 푸트라자야에 위치한 Sekolah Alam Shah(SAS)와 사이버자야에 위치한 Sekolah Seri Puteri(SSP)에서 최초로 한국어 시범 수업이 시작되었다. 대학 기관에서 교양과목 위주로 개설되었던 한국어 과목이 제2외국어 과목으로 중등교육 과정에서 실시된 것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 발전 과정에서 도약의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총 11개 중등학교에 정규 한국어반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65개 반에서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No	학교명	구분	
		학급 수(개)	학생 수(명)
1	SM Sains Seri Puteri	4	94
2	SM Sains Tuanku Aishsh Rohani	6	210
3	Sekolah Seri Puteri	6	180
4	SMK Taman Bunga Raya	5	62
5	SM Sains Selangor	4	131
6	SM Sains Alam Shah	5	116
7	Sekolah Sultan Alam Shah	9	149
8	SMK Bukit Sentosa	6	95
9	SM Sains Kuala Selangor	5	140
10	SM Sains Tuanku Munawir	7	174
11	SM Sains Johor	8	157

(표 2 :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현황)¹²⁾

말레이시아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선택 과목 형태로 제공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12)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자료 (<https://kecmy.com/ko/sub/middleschool>)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용되는 교재가 최근 한국어교육재단에서 출간되었다는 것인데, 그 교재들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 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2)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 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3)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 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4)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 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5)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 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6)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 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7)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 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8)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 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9)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 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3.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

말레이시아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 in Malaysia, KEC)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학당이 일반 시민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문화 보급기관이라면, 한국교육원은 공교육 체계 내 한국어 정규과정 확산과 교사 양성 중심의 기관이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세종학당이 마련한 한국어 강좌 수료자들이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나 현지 학교 수업으로 이어지는 등 협력적 연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양 기관 모두 한국 정부의 다른 부처 산하에 속하지만, 말레이시아 내 한류 문화 확산과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1)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대한민국 교육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식 해외 교육 기관으로, 2020년 12월 30일 쿠알라룸푸르에 개원하였다. 주된 임무는 말레이시아 현지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고 현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평생교육 및 한국유학 상담, 한-말레이시아 교육교류 사업을 담당한다.

A.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는 <초급 1(A)반>(온라인)과 <초급 1(B)반>(오프라인)을 개설하고 있다. ‘TOPIK I 오프라인 특강’과 같은 특별 수업도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지원한다.

B. 한국 문화 확산 활동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한다.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C. 유학 및 진로 지원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한다. 한국 대학 입학 설명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2) 말레이시아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재단이 관리하는 국제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이다. 쿠알라룸푸르 세종학당은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플라자(Korea Plaza)’ 내에 설립되어, 일반인과 성인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체험 수업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쿠알라룸푸르대학교, MMU 등의 대학이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세종학당 교재를 기반으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어를 교육한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Zoom)을 병행하여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한 특강도 제공하고 있다.

B. 한국 문화 프로그램

한국 전통 문화, 음식, 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한글날, 설날 등 한국의 주요 명절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여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C. 온라인 학습 플랫폼

누리 세종학당(Nuri Sejonghakdang)은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수준의 강좌와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세종학당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V.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말레이시아는 이미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대학 한국어학과, 한류 기반 교양과목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확산 중이다. Korea Foundation의 KF 통계센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9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포함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면서 한국학 강의 제공에서 세계 13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¹³⁾ 그러나 <표 1 : 한류 동호회 현황>에서 보듯이 2020년 4,164,298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던 한류 동호회원들의 수는 그후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동호회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추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지화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대학 내에서 한국어(한국어 통번역), 한국 문화 전공학과를 만들고 중등학교에서 중국어와 아라비아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표준 교재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이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학생의 언어 배경과 학습 수준에 맞춘 현지형 교재와 평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보았듯이 최근 교육부 산하 한국어교육재단에서 말레이시아 맞춤형 어학 교재가 출간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은 실제로 한국어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욕구가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언어 교재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 영상 콘텐츠, 문화 행사, 현지 교류 프로그램등을 교육 프로그램(예 : ‘K-pop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K-드라마 속 문화 읽기’)으로 개발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확보와 양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는 세종학당 및 한국교육원 파견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제’(한국어능력시험+교수법 연수 포함)를 도입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인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어 과목을 제공하는 현지 대학 내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교직 연계 과정을 신설하고 한국 대학들과 ‘한국어 교육학 석사과정(M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공동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류산업(K-pop, 미디어, 관광, 화장품, 음식)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어 학습이 직업적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 연계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졸업생이 한국어 실무 자격증과 동시에 기업 인턴 경험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기할 것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오가면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K-Start’ 프로그램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5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아시아퍼시픽대학교(Asia Pacific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와 게노바시대학교(Genovasi University College)이 각각 체결한 혁신 공동교육사업

13) 참고로 1위는 일본(대학 수 377), 2위는 중국(대학 수 270), 3위는 미국(대학 수 141), 4위는 러시아(대학 수 39), 5위는 베트남(대학 수 38), 6위는 대만(대학 수 36), 7위는 태국(대학 수 32), 8위는 영국(대학 수 29), 9위는 인도(대학 수 23), 10위는 독일(대학 수 21), 11위는 몽골(대학 수 21), 12위는 프랑스(대학 수 20)이다.

으로,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양국 대학의 캠퍼스를 오가며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동서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생들은 말레이시아 아시아퍼시픽대학교와 게노바시대학교에서 1년, 이후 동서대학교에서 3년을 학습하며 전공 분야를 확장해 갈 수 있으며 한국어 비즈니스, 컴퓨터 공학, 영화 및 시각특수효과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류 확산 및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⁴⁾

그런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발전을 한류의 확산 덕분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일방적인 우리 문화의 전달 혹은 전파만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한류가 유입되어 환영받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레이시아에서 2020년 이후를 기점으로 꺾여진 한류의 인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말레이시아에 파견되는 교사들은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슬림의 기도 시간이나 라마단 축제 등에 대해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짤 짜야 하기 때문이다. 옷차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자 선생님이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으로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음 해 재파견이 취소된 예도 있었다. 문화 체험 시간에 떡볶이를 만든다면 그 재료가 할랄 식품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그릇에 돼지고기를 쓰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무슬림의 규율은 엄격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¹⁵⁾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 그 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류의 확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개인의 정서적 능력인 ‘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말레이시아 방송업계는 한국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여 자국에서 다시 제작하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고, 한국과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들도 제작하고 있다. 2017년 개봉한 마이클 양(Michael Ang) 감독의 영화 ‘너를 위한 김치(Kimchi untuk Awak)’는 말레이시아 작가 수리 라냐(Suri Ryana)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주인공 벨라(Emma Maembong)과 한국·말레이시아 혼혈인 다니엘 이재환(Aiman Hakim Ridza)의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경희대학교, 인천국제공항, 남이섬, 명동, 북촌한옥마을 등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폐낭과 쿠알라룸푸르 등지에서 촬영되었다. 영화 개봉 후 영화 속 주인공이 방문한 한국 내 관광지를 다루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김치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정도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친근한 한국 음식으로,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로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5월 13일 더 커브 쇼핑몰에서 열리기도 했다.¹⁶⁾

2018년 데이비드 띠안(David Thian) 감독이 연출하고 필름 라인(Film Line)이 제작한 <순풍어(Shung Pong O)>는 말레이시아 어촌에 사는 소녀가 한국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쿠알라 쿠라우와 서울 한강 공원,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 등에서 촬영되었고, 주인공인 한국인 박지훈 역은 김호원 배우가 맡았다. <순풍어>에는 말레이시아 내 한

14)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홍성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통신원], (2025-06-05), ‘통신원리포트 인터뷰’를 참고할 것.

15) 좀 더 상세한 예들은 안정민, 「말레이시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33권 1호, 2023.을 참고할 것.

16) cf. 한국계 말레이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너를 위한 김치>(2018-08-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welcon.kocca.kr/ko/info/trend/1933490>.

류의 영향을 반영하여 케이팝, 한국 드라마, 한국어 등이 등장한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여 주인공 샤이니 탄(Shiny Tan)은 극 중에서 “오빠”, “대박”, “어디 있어?” 등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주연배우 현빈이 입었던 운동복이나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단체로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 등 한국과 관련된 요소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주인공이 한국에 대해 갖는 호감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202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봉한 한국의 좀비 액션 스릴러 영화 〈반도〉의 대성공이다. 이 영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봉쇄령이 풀린 직후 개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박스오피스에서 하루 만에 무려 52만 말레이시아 링깃(약 1억 4,7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말레이시아 내 한국 영화 시사회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CEFIA)이 2021년 주관한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에세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라자 움미 나드라(Raja Ummi Nadrah Binti Raja Sulaiman)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의 좀비 액션 스릴러 '반도'의 성공은 놀라운 비주얼과 액션들이 가득한 스토리라인 외에, 말레이시아 여배우가 영화에 짧게 출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함께 작업하는 이와 비슷한 작업물이 나온다면 더 많은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이 한국 영화를 볼 것이며, 아마도 한국 문화의 새로운 부분도 알게 될 것이다.”¹⁷⁾

한편, 2021년 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 아이엠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주요 구절이 표기된 의상을 착용했다가 현지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그룹 B1A4가 현지 팬미팅에서 무슬림 소녀 팬들과 포옹하고 입 맞추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여 이슬람 율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뻔한 사건도 있었다.¹⁸⁾ 이제 한국은 한류를 일방적인 문화 확산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개방적 태도와 포용적 접근이야말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류는 단순한 문화상품의 수출을 넘어,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17) CEFIA Newsletter Vol. 218, September, 2022.

18) cf. 신만금(2022), 통계로 본 한류 스토리,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말레이시아 한류 심층분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www.kofice.or.kr.

참고문헌 (References)

㉑ 공식 기관

-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Pusat Pendidikan Korea Malaysia), 2025, <https://kecmly.com/ko>.
세종학당, 2025, <https://www.ksif.or.kr/intro.do>.
KF 통계센터, 2025, <https://www.kf.or.kr/koreanstudies/hallyu.do>.
KOFICE, 2025, <https://kofice.or.kr/index.asp>.
Open University Malaysia Official Website, 2025, <https://www.oum.edu.my>

㉒ 단행본,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 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 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Pre-A1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 책임연구원: 김선정 ;선임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강진숙 ;연구원: 김지영 A,김지영 B,박주영,방지연,이민경,이영주 ;번역: 정지훈,시티 누르 샤히라 빈티 모하마드,누라 예자티 빈티 마즐란,아미라 나디라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2.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1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배명숙,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김목아,김예지,이민경,정지훈,최주미 ;번역: 아미라 나디라 빈티 압둘 라흐만,카이룬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누르 아스파 아우니 빈티 (...),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3.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 익힘책』,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육재단, 2024.

『(해외 초·중등) 한국어 : A2 : 말레이시아 : 교사용 지침서』, 책임 연구원: 김선정 ;선임 연구원: 민경모,강현자,김성수 ;연구원: 강진숙,이민경,이경운,정지훈,무하마드 샤히드 하산,카이룬 누르 아 킬라 빈티 카이루딘 ;번역: 조민성,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삽화: 허지영,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2024.

나은영(2007),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말라야 대학교(UM)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3).

안정민(2023), 「말레이시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33(1).

조철호(2007), 「말레이시아의 한류와 한국과의 관계변화」, 『민족연구』, 29.

조항록(2021),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1).

3) 언론 및 기타 자료

CEFIA Newsletter Vol. 218, September, 2022.

신만금(2022), 통계로 본 한류 스토리,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말레이시아 한류 심층분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www.kofice.or.kr.

홍성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통신원], (2025-06-05), ‘통신원리포트 인터뷰’, 한국계 말레이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너를 위한 김치〉(2018-08-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welcon.kocca.kr/ko/info/trend/1933490>.